

인구감소, 대안은 체류인구 활용?

전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

정책 측면 분야별 쟁점사항
문제점·개선방향 등 논의
조례 제정 등 추진체계 마련
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키로
“콘텐츠 개발로 관광 늘려야”

전북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는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주제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도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대토론회'를 했다.

인구정책 대토론회는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인구정책 민·관 위원회 등 전문가와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그리고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대토론회는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인구정책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민관위원회의 심도있는 분과별 토론, 2부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인구정책 측면에서의 분야별 쟁점사항, 문제점, 개선방향 및 신규 시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전북도의 인구정책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주제별·분과별로 토론된 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을 발표하고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인구문제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는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발표에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TF의 운영과 전문자 자문 및 설문



전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가 10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결과, 인구감소 원인분석과 대응방향 마련 등 그간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6대분야 전략과 함께 향후에는 인구조례 제정 및 민관위원회 구성 운영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별 시책을 발굴하여 연말까지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비전(안)으로는 '사람이 모이는 삶터, 미래가 있는 전북', '살고 일하고, 찾고 싶은 전북', '젊음이 샘솟는 일터! 미래가 있는 삶터! 전북', '버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등 4가지 비전(안)을 제시하고 대토론회 참석자들에

게 선호도 조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김동영 연구위원은 체류인구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이 우리와 비슷하게 인구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여건에서 단기간에 정주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체류인구 도입을 주장했다.

전북도는 거주인구에 비해 관광객이 많은 상황으로 관광객 맞춤형 문화관광 콘텐츠 및 체험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류관광과 관광객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에는 체류인구를 활용해서 지역개발의 수요산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도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교부세 산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구문제해결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 워라밸 문화 확산 등 직접적인 인구부양 정책에서부터 인구 문제의 핵심인 청년세대의 취업과 정착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이번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인구증대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해외 언론도 '주목'

영국 'Food & Travel' · 중국 '팅선다라오왕' 등 전주 찾아

전주시는 영국의 음식·관광 전문 매거진인 'Food & Travel'이 전주음식과 전통문화를 직접 취재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10일 밝혔다.

'Food & Travel'은 영국의 음식·관광 전문 매거진으로, 59만여명(오프라인 18만명, 온라인 40만명)의 독자를 갖고 있다.

'Food & Travel' 소속 기자 2명은 지난 8일 전주를 방문, 함씨네밥상과 전주쟁이집, 옛촌막거리, 전일슈퍼 등 전주 대표 먹거리 업체와 남부시장, 오목대 등을 취재했다. 또, 전주일정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전주 전통비빔밥업소인 한국집을 취재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는 지난 3월 영국의 3대 언론사인 '더 가디언(The Guardian)'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기

념한 'A foodie tour of South Korea(대한민국 음식기행)'라는 기사를 통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비빔밥의 본고장 △한국에서 음식으로 대적할 곳이 없는 도시 등으로 소개함으로써 전주시가 영국 등 유럽에 미식여행지로 알려지게 된 바 있다.

시는 더불어, 중국 방송매체인 '팅선다라오왕 미식채널'에서도 전주비빔밥축제 기간에 맞춰 전주한옥마을, 남부시장 등을 현장 촬영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분양원가 공개 추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사진)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동영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 DTI 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요구하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년 사이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에서 2017년 6.7%로 증가했다"며 "상위 1%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

에서 '핵심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1가구 3주택, 5주택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적인 주거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뤘었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저히 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다"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성 기자

금품수수 법조비리 5년새 두배로 경증

이춘석 의원, 2013년 82명서 작년 163명으로 늘어

최근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조비리 판사의 의혹을 제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재판개입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2018년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유형별 법조비리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는 82명이었던 '금품수수형' 법조비리사범이 2017년에는 1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유형별 법조비리사범 전체가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법조비리 증가세는 매우 가파르다.

또한, 변호사의 명의대여 및 부정수입과 관련된 비리사범들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명의만 빌리고 실무는 사무장과 같은 실무자들이 처리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현직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재판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들조차도 얼마나 비리나 불법에 둔감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각종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하고 양산되어 온 토양이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라북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10.12.~18.
익산 종합경기장 등 73개 경기장(전라북도 일원) 47개 종목(영식 46, 사범 1)

JEONBUK 2018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8th NATIONAL PARA GAMES
2018.10.25.~29.
익산 종합경기장 등 33개 경기장(전라북도 일원) 26개 종목

아름다운山河 준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주최: 대한체육회, 한국장애인체육회, 전북장애인체육회, 전북체육회, 전북농구협회, 전북탁구협회, 전북배드민턴협회, 전북수구협회, 전북씨름협회, 전북체조협회, 전북태권도협회, 전북유도협회, 전북호기서도협회, 전북씨름협회, 전북체조협회, 전북태권도협회, 전북유도협회, 전북호기서도협회